

눈길끄는 특·특·행·정

“어르신 장보기 청년에 맡기세요”

강진군 ‘차이나는 배달소’
11월까지 5일 장날 운영

강진군이 강진5일장날에 ‘차이나는 배달소’를 운영한다. (사진)
이는 오감통시장의 주요 고객인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 장바구니 대여, 물품 보관 및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배달소는 또 지루한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간단한 공예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차이나는 배달소’의 ‘차이나는’은 사업 수행 주체가 청년이고, 사업 대상자는 노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주관한 주민 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강진군 군내버스터미널에서 5일장날(4일, 9일) 운영된다. 주민 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주민이



강진군은 오는 11월까지 강진5일장날 청년들이 어르신 장보기를 대행해준다.

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가 주도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이 핵심 요소이다. 지난 19일 열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해 장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청년들이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태풍에 약한 나무 베어드립시다”

장성군. 위험목 제거 사업
인명·재산피해 줄여 호응

장성군이 태풍이나 강풍 등에 의한 나무 쓰러짐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이 베어내기 어려운 위험 수목 90여 그루를 사전에 제거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재해 위험 수목 100여 그루를 제거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있다.

위험 수목 제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년 12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지역은 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곳만 가능하며, 제거 비용의 3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은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장성군이 태풍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를 정하고 이듬해 상반기에 제거한다. 베어낸 나무는 땔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산림재해가 증가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위험목 사전 제거사업을 통한 더욱 안전한 장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 원도심 야외·소규모 공연...관광객 ‘손짓’

공공연한 이야기·정미쌀롱 등
주말 관광객 문화예술 ‘만끽’

담양문화재단은 담양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인 천변리 정미다방과 담빛길 내 국수의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빛길 1구간인 국수의 거리에 위치한 카페 달순 앞에서는 마지막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공공연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의 영향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오는 28일 공연에는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가 ‘국악 속속 콘서트-내 마음 신명나게’를 주제로 공연을 펼쳐 전통음악의 흥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예정이다.

옛 천변정미소를 재생한 천변리 정미다방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정미쌀롱’을 운영한다.



담양문화재단의 ‘공공연한 이야기’가 지난달 담양 담빛길 국수의 거리에서 열렸다. <담양문화재단 제공>

이번 달에는 ‘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ream I’에서는 나리(플루트)와 장문석(베이스)이, ‘Dream II’에서는 이화림(가야금)·서주원(피아노)·현정화(핸드팬)의 공연이 펼쳐진다.

담양문화재단 관계자는 “군민과 담양을 찾는 모

든 관광객에게 남도 특유의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야외나 소규모 공연을 통한 관광 요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취득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최근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지원센터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장성예천농조합법인이 운영

하는 가공식품 제조시설이다. 58종 79점의 최신 가공장비를 갖춰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과채주스, 잼, 엿 등 31개 가공품을 생산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장성군은 지원센터가 전남권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대표 맛집 선정에 군민·관광객 참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 추천

화순군의 지역 대표 맛집 선정에 군민과 관광객들도 참여한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한 2차 평가를 이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2차 평가는 군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화순군청 홈페이지(사진) 메인 화면 왼쪽 상단이나 참여마당(군민참여)의 ‘화순 맛집 추천’에 접속해 맛집을 추천하면 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맛집 공모를 통해 신청하거나 추천된 업소 중 1차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일반음식점 36곳과 카페 9곳이 대상이다.

적격 여부 심사와 추천 집계 뒤 업소를 직접 방문해 관광 연계 가능성, 영업장 위생 평가 등 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한다.



최종적으로 일반음식점 25곳 내외, 카페 5곳 내외를 맛집으로 선정한다.

선정 업소는 화순군 맛집 가이드북 ‘화순 8경 맛집 기행’에 수록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맛집 선정과 관광화순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계와 관광서비스 업계에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화순군을 대표할 맛집 선정에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 칠량농공단지 농수특산물 판매장 개장

강진군이 칠량농공단지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마련, 오는 29일 개장한다.

강진군은 칠량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총 4억원을 투입해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했다. 판매장은 1714.8㎡ 부지에 연면적 182.6㎡(55.2평)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칠량농공단지는 수산물특화단지로 입주기업에

서 생산되는 미역, 김, 멸치 등 해조류 제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칠량면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계절 신선농산물도 판매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판매장 개장으로 칠량농공단지의 수의 증대와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